



대한민국 스포츠의 근본적 변화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체육시민연대와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2022년 4월, 하늘에 별이 된 김포FC 유소년
축구 U-18팀 정우림 선수의 명복을 빕니다.
우리는 잊지 않겠습니다.

체육시민연대 뉴스레터

2024년도 제35호

[김세훈의 스포츠N]

파리올림픽 부진 종목들, 소나기 피해서 다행일까

김세훈 스포츠경향기자

임오경 의원실 대표발의에 교총 "개정 법안 철회" 촉구

"스포츠강사 아닌 체육전담교사 확충 필요"

한병규 한국교육신문 기자

금메달 만큼 값진 체육계의 변화 기대

안세영 선수가 딴 두 개의 금메달, '실력'과 '용기'

정일근 경실일보 기자

학교체육진흥연구회 회장 기고

경기단체 전력 분석도 제대로 못하는 대한체육회장!

황수연 경기신문 기자

"입법, 관리체계 도입 등으로 관리 필요"

이름만 '학원'인 유소년 체육시설...아동보호 사각지대

이보현, 박민정 경기신문 기자

기사 모아보기

주간 스포츠 소식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효령로 230. 승정빌딩 407. I TEL 02-2279-8999

<https://www.sportscm.org/>

파리올림픽 부진 종목들, 소나기 피해서 다행일까 [김세훈의 스포츠IN]

파리올림픽에서 부진한 종목들은 지금 국민의 무관심 속에 과연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현재 국민으로부터 강한 질타를 받는 대표적인 체육 단체는 대한체육회, 대한축구협회, 대한배드민턴협회다.

대한체육회는 이기흥 회장의 과도한 행동, 상급 단체인 문화체육관광부와 잇단 충돌 등으로 여론의 포화를 맞고 있다. 대한축구협회는 지난 수년간 동안 승부조작 가담자 사면, 국가대표팀 부진과 논란 속 감독 교체, 선수단 내부 불화 등으로 국민으로부터 외면받고 있다. 대한배드민턴협회는 안세영의 파리폭로로 구시대적인 관례가 드러나 정치권 타깃까지 됐다.

이 3곳 모두 체육 단체 중 재정이 많고 시스템도 그런대로 괜찮은 곳이다. 스타들이 많아 인기도 많고 국민적 관심도 크다. 이곳에서 최근 불거진 잇단 사건들은 표심, 인기로 생존하는 국회의원에게 달콤한 먹잇감이 됐다. 이 3곳에게는 이번 국정감사가 무척 치욕스럽고 고통스러운 시간이 될 것 같다.

지금 체육계를 향한 들끓는 비난에서 벗어난 곳은 어디일까. 공교롭게도 파리올림픽에서 부진한 종목들이다.

파리올림픽에서 한국 레슬링은 첫판에서 모두 졌다. 8개 종목에서 우승한 일본과 대비됐다. 한국 육상은 출전 선수가 겨우 3명뿐이었다. 체조는 노메달이었다. 펜싱은 사브르는 선전했지만, 전통적으로 강한 플뢰레, 에페는 메달을 따지 못했다. 배드민턴에서는 남자 단·복식, 여자 복식이 부진했다. 다이빙은 한 개 종목(11위)을 빼고 모두 결선행에 실패했다. 최근 높은 인기를 끄는 테니스, 골프도 기대 이하였다. 수영은 15개 세부 종목에 나섰지만 2개만 결선에 진출했고 메달은 동메달 1개가 전부다. 단체 구기 종목 중 유일하게 파리 무대를 밟은 여자핸드볼도 1승4패에 그쳤다. 남녀축구, 남녀농구, 남녀배구는 파리에 가지도 못했다. 이런 종목 중 다수는 지금 국민 관심사 밖으로 밀린 형국이다.

국제무대에서 경쟁력을 잃은 종목들을 어찌해야 할까. 그냥 본인들 영역이니 내버려 두는 게 맞을까. 아니면 체질 개선, 구조조정을 요구해야 할까.

체육계 개혁은 인기 종목, 현재 이슈가 되는 종목에만 집중해서는 안 된다. 모든 종목에 걸쳐 행정적, 재정적 시스템을 바꾸는 쪽으로 개혁은 진행돼야 한다. 경기단체부터 뼈를 깎는 자구책을 내놓아야 한다. 정부 지원·기업 지원에 매달리며 생존에 연연하는 관행과 체질은 바뀌어야 한다. 세금, 기금으로 연명하는 태도를 버리고 종목의 저변확대, 유청소년 선수 육성, 각급 대표팀 경기력 강화 등에 대해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자구책, 발전안 등에 현실성, 책임성, 진정성을 담은 체육 단체만 세금, 기금을 받을 자격이 있지 않을까.

국민의 관심을 받는 일부 인기 종목에 대한 비판으로는 체육계 전반적인 개혁과 성장은 이뤄질 수 없다. 본질과 핵심에 대한 변혁을 도출하려면 기존 시스템에 과감하게 손을 대야 한다. 고통 없는 성장은 없다.



“스포츠강사 아닌 체육전담교사 확충 필요”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초등학교에 스포츠강사를 의무 배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학교체육 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자 한국교총 등 교육계는 정규 교원 확충이 더욱 필요하다고 법안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교총은 “학생들의 신체활동 경험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수업 보조인력인 스포츠강사가 아니라 정규 교원 확충을 통한 체육 교과전담교사 전면 배치와 학교 체육시설 확충이 필요하다”며 “개정 법안은 철회해야 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교총은 법안 철회 의견서를 의원실에 전달했다.

초등 체육활동을 활성화하려면 취지에 맞게 체육을 가르칠 교사 확대가 먼저라는 것이다. 초등교사 자격증을 갖춰 학생 발달단계와 초등 체육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체육 교과전담교사를 확대 배치해야 체육 시수 확보는 물론 내실화 할 수 있다는 것이 교총의 설명이다.

스포츠강사의 경우 혼자 체육수업을 맡을 수 없다. 교육계는 무작정 스포츠강사 숫자를 늘려서 학교체육 활성화가 이뤄질 수도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교총은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교원 정원 감축 여파로 점점 교과전담교사를 줄여 담임으로 배치해야 하는 현실”이라며 “체육 교과전담교사 확보를 위해 교원 정원 감축이 아니라 정원 확충에 나서야 한다”고 비판했다.

교육 현장에서는 체육 활성화의 최대 걸림돌로 학교 체육시설 부족도 꼽고 있다. 정부 차원의 학교 실내 체육시설 설치·활용 실태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지원부터 시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교총도 학생들이 언제든지 안전하게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과 안전설비를 갖춘 체육관 확충에 우선 지원할 것을 요구했다.

교총은 “갈수록 황사, 미세먼지, 폭염, 혹한 등으로 운동장에 나갈 수 없는 날이 많고, 선크림 사용 공지를 못 받았다고 운동장 수업을 아동학대로 신고하겠다는 학부모 민원까지 보도되는 지경”이라면서 “그럼에도 학교에 체육관이 없는 곳이 많고, 있어도 한 반 정도만 수업할 수 있을 만큼 작은 경우가 많은 상황에서 무슨 체육 수업 활성화가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초등 체육활동에 흥미를 제고하고 활동 중심의 체육교육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과밀학급, 과대학교 해소 정책이 필수”라며 “정규 교원 확충을 통한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일근 칼럼]안세영 선수가 딴 두 개의 금메달, '실력'과 '용기'



올해 파리 올림픽 배드민턴 여자 단식에서 금메달을 딴 안세영 선수는 올해 22살의 전형적인 MZ세대입니다. 안 선수는 금메달을 따고 나서 MZ세대답게 용기 있게 나서 대한배드민턴협회의 잘잘못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항의했습니다. 일파만파의 파장이 한국 스포츠계를 강타했습니다. 나는 먼저 안 선수의 용기에 박수를 보냅니다. 그녀의 용기에 배드민턴협회는 물론 한국체육회까지 '꼰대들의 몰락'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아니, 꼰대들이 몰락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변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랬다느니, 협회의 지원이 없었으면 세계적인 선수로 성장을 못 했을 거라느니, 누구보다 큰 혜택을 받았다고느니 하는 접근으로는 문제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습니다. 또한 발전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꼰대가 아니라 안 선수의 말처럼 대화하고 귀 기울여 들어줄 나잇값 하는 어른이 한 명이 더 있어야 할 때입니다.

스포츠 조직은 철저한 위계질서 사회입니다. 뛰어난 실력을 갖췄기에 중학교 3학년이던 2017년 국가대표에 처음 발탁된 안 선수는 지난 7년 내내 대표팀에서 잡일을 도맡은 것으로 부모들에 의해 알려졌습니다. 선배들의 끊어진 라켓 줄을 일일이 가는 것은 물론 일부 선배들의 속옷 빨래도 대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된 연습 뒤에 휴식이 필요한 어린 선수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개인의 인권을 무엇보다 중시하는 21세기에 아직 이런 악습이 관례라는 명분으로 남아 있다니 듣고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뿐만 아니었습니다. 안 선수는 금메달을 획득한 후 이런 인터뷰를 남겼습니다. "부상은 생각보다 심각했다. 나올 수 없었다. 그리고 내 부상을 안일하게 생각한 대표팀에 많은 실망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이 순간을 끝으로 대표팀과는 계속 가기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다. 나중에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다."라며 억울했던 감정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만약 안 선수가 30대가 넘는 나이였거나 협회나 체육회의 눈치를 보는 선수였다면 분명 침묵했을 것입니다. 앞으로 선수 생활하는데 받을 불이익을 먼저 생각했을 것입니다. 안 선수는 젊기에, 당당한 MZ세대이기에 자신의 고통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개선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주재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안세영 선수의 폭로와 관련한 내용을 논의했다고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차원에서 진상 조사에도 나선 모양입니다. 수박 겉핥기식으로, 체면치레하는 정도로 끝나서는 안 될 일입니다. 이에 맞서 대한배드민턴협회가 안세영 선수를 조사하겠다고 나서 '조사받을 비리 단체가 무슨 조사를 하느냐.'는 지적에 혼이 난 모양입니다. 민주당 문체위원들과 비공개 대화까지 나누었다니 모든 것이 낱알이 밝혀져 일벌백계의 결론이 나길 바랍니다.

안 선수의 폭로로 협회가 대표팀 선발에 개입하고 임원 여비에 돈을 펄펄 쓴 사실과 협회가 자행한 실책들이 계속해서 네티즌 수사대에 의해 발굴되고 있습니다. 일이 터지자 올림픽 도중 대한배드민턴협회 임원진은 언론과 여론의 집중 공격을 피하려고 선수단보다 일찍 귀국하는 줄행랑치는 모습까지 연출했습니다. 이는 정정당당하지 못한 꼰대들의 면피를 위한 도피로 국민적 빈축을 사지 않았습니까. 진실은 밝은 것이어서 그 어떤 것으로 가릴 수가 없습니다.

나는 안세영 선수 문제 제기에 대한배드민턴협회나 대한체육회의 대처가 어른답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22살의 여자 선수의 이유 있는 항변을 왜 큰 어른처럼 안아주지 못하고 과잉 대응하는지. 파리에서 그녀에게 질책성 언사를 퍼붓기보다는 따뜻하게 안아주고 문제해결에 나섰다면 얼마나 아름다웠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은 자신들이 감춰야 하거나 드러나서는 안 될 문제가 너무 많다는 방증입니다.

이제 문제해결 의지가 있는 참된 어른과 MZ세대들이 나서서 안세영 선수를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 불합리한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세대 간의 벽을 허물고 안세영 선수를 지켜야 할 때입니다.

[기고] 경기단체 전력 분석도 제대로 못하는 대한체육회장!

경기신문
황수연 학교체육진흥연구회 회장 2024.08.26



2024 파리올림픽에서 대한민국선수단의 선전 분투는 국민들에게 큰 기쁨과 감동을 주었다. 오랫동안 흘린 땀과 눈물의 결실로 국위를 선양하고 국민 화합에 기여한 진정한 영웅들에게 뜨거운 박수를 보낸다.

그런데 이번 올림픽 출전을 앞두고 대한체육회의 전력 분석은 완전히 빗나갔다. 당초 전망과 비교해 금메달 2~3개 정도는 차이가 날 수 있지만 세배 가까이 메달 수가 벌어진 것은 주먹구구식으로 메달 분석을 했다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우리 선수뿐 아니라 다른 나라 선수들의 전력에 대한 정보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다. 도대체 대한체육회는 무엇을 근거로 한국선수단의 금메달 목표치를 5개로 정해 국민들에게 발표한 것인가?

대한체육회가 올림픽 전망을 비관적으로 제시한 것은 올림픽 참패를 예상해 엘리트 체육 위기 운운하면서 엘리트 체육의 부진을 핑계로 올림픽이 끝난 후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일부러 목표치를 과도하게 낮춘 게 아닌지 의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대회를 출전하기도 전에 금메달 목표를 5개로 발표한 이기흥 회장의 저의가 무엇인지는 몰라도 당시 이기흥 회장의 금메달 5개 축소 발표는 국민들의 사기를 저하시켰고, 4년간 피 땀흘려 고생한 선수들의 경기력을 폄하해 선수들에게 실망감을 주고 가슴에 큰 상처를 줬다.

또 출전 선수단이 48년 만에 144명으로 사상 최소로 줄었음에도 임원 파견 규모는 118명으로 그대로였고, 예산도 도쿄대회 64억보다 두 배 가까이 늘어난 122억으로 임원들은 비즈니스석을 이용하는 특혜를 주고 실제 경기를 하는 체력이 큰 선수들은 좌석이 협소하고 불편한 3등석으로 이용토록 해 선수들을 학대한다는 질책도 받았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선수가 임원보다 우선인데, 선수들을 배려하지 않고 임원들만 특혜를 준 것은 주객이 전도 된 것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대한민국 스포츠계가 폭력과 무질서로 부패해 온 국민의 지탄을 받은 것을 체육회장은 기억하고 있는가? 사고가 지속적으로 터져도 아무런 대책도 수립하지 못하고 사건이 터질 때마다 사건 축소와 언론보도 방지에만 급급하여 언론과 국민들의 질타를 받지 않았던가?

우리나라 엘리트스포츠의 침몰은 학교체육진흥법을 만들어 놓고 소년체전 폐지, 학교 운동부 해체, 합숙 훈련 금지로 우수선수를 배출하는 통로 자체를 틀어 막아버린 것이 원인이다. 엘리트스포츠가 국가 발전에 기여한 긍정적인 평가는 고려치 않고, 엘리트 선수 육성이 비교육적이라고 학생들의 학습권과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었다는 학교체육진흥법이 드디어 대한민국 학교체육을 황폐화시키고 경기력을 쇠퇴시켜 그 결과 엘리트스포츠의 몰락을 초래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가 국제경기인 아시안게임과 세계올림픽에서 8년 사이에 경기력이 크게 저하된 것은 대한체육회장의 스포츠와 체육 정책에 대한 전문성 부족과 무지의 결과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대한체육회의 국제스포츠 경기력 침몰은 피눈물 나게 훈련해 온 국가대표 선수들과 우리 국민들의 사기를 저하시켰고, 전 세계에 대한민국 스포츠 강국의 위상을 실추시킨 것이다.

대한체육회를 지도·감독하는 정부의 문체부 장관을 무시하는 이런 무례하고 오만방자한 패륜 행동을 하는 자가 과연 대한민국 체육단체 수장의 자격이 있는 것인가? 대통령께서는 이번 기회에 대한체육회와 경기단체의 운영 전반에 대한 부조리 척결과 비합리적인 선수 관리의 적폐를 청산하기 위한 철저한 감사를 통해 대한민국 체육 발전을 위한 일대 혁신 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원로체육인들은 기대하고 있다.

이름만 '학원'인 유소년 체육시설... 아동보호 사각지대

태권도장, 체대입시학원 등 스포츠시설은 '학원'이라는 명칭을 쓰고 있지만 학원법 적용은 받지 않아 교육 차원의 관리감독이 부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태권도장, 체대입시학원 등 스포츠시설은 학원법 적용을 받는 학원 시설이 아닌 스포츠시설, 자유업종 등으로 분류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스포츠시설 이용자는 유소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실제 국기원 세계태권도연수원 자료에 따르면 국내 1만 3000여 곳의 태권도장 90% 이상이 유아·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다.

현재 스포츠시설은 심야교습시간제한, 시설 인근 유해시설제한이 이뤄지지 않는다. 아동성폭력 예방교육 등 연수 역시 학원보다 협소하게 이뤄진다. 일반 학원의 경우 오후 10시 이후 운영이 제한되지만 체육시설의 경우 0시부터 오전 5시를 제외하면 모든 시간에 이용이 가능하다. 또 학원은 학원장과 강사를 대상으로 아동성폭력 범죄 등의 연수를 진행하고 있지만 태권도장의 경우에는 사범을 제외한 '관장'만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원은 규모에 따라 인근 유해업소 시설 설치가 제한되지만 체육시설이나 체대입시학원 등 자유업종은 이 같은 제재가 사실상 전무하다. 또 학원장, 학원강사 등은 아동학대를 저지르면 받은 형의 2분의 1을 가중처벌받지만 체육시설 운영자는 가중처벌이 어렵다. 실제 지난 7월 12일 양주시의 한 태권도장에서 3세 아이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며 이 같은 법적 사각지대에 대한 우려는 커지고 있다.

수원 지역의 한 학부모 A씨는 "태권도학원이라고 불리던 곳이 학원이 아니라니 말이 안된다"며 "수련생 대부분이 아이들이고 관장이 아닌 사범들이 직접 지도하는 곳도 많은데 아동성폭력 등 아동학대 교육을 받지 않는다는 것도 충격적"이라고 전했다. 용인 지역의 한 학부모 B씨도 "체대입시학원도 학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면서 자유업종으로 분류된다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며 "입시경쟁 방지 등의 이유로 경기도는 10시 이후 학원운영이 금지되는데 체대입시학원은 입시를 위한 학원인데도 10시가 넘어도 제재를 받지 않는다는 게 모순적"이라고 꼬집었다. 관련 기관들은 법적 근거가 없어 유소년 이용률이 높아도 스포츠시설을 관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구청에서는 민간체육시설 등록업무만 진행하고 있다"며 "이런 부분들이 보완되려면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니 입법이 우선이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도 "학원법이 적용되면 관리감독을 하겠지만 교육청은 행정기관이기에 관리할 법적 근거 자체가 없다"며 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유소년 이용 비율이 높은 체육시설에도 학원법과 같은 관리감독 체계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아동학대 전문 김신 법무사무소운을 변호사는 "태권도장은 유소년 이용비율이 높는데 아동학대 관련 법은 적용되지 않고 있다"며 "대부분 학원 형태로 운영되는 유소년 대상 체육시설에도 학원법 일부를 적용해 교육적 차원의 관리감독 체계를 적용하면 아동학대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도승숙 참교육을위한경기지부장은 "최근 양주 태권도장 관장 아동학대 사건 등 체육시설에서 아동학대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현시점을 계기로 입법을 통해 해당 문제를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체육시설은 아이들이 몸으로 뛰놀고 지도자와 몸으로 접촉할 일이 많은 만큼 아동학대 발생 가능성도 높아 비상 상황에서 대체 시스템 또한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구자송 전국교육희망네트워크 대표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기관임에도 지자체 소관이라면 교육적인 관리감독이 부족할 수 밖에 없다"며 "다만 태권도장 등은 전국적으로 너무 많으니 교육당국으로 포함시키기보다는 지자체 등이 유소년 이용 비율이 많은 일부 시설에 CCTV설치 의무화 등 적극 관리체계를 도입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제언했다.

이에 태권도협회 관계자는 "아동학대가 일어나면 협회 차원에서 징계를 내리고 있다"며 "이번 양주 태권도장 아동학대 사건 이후 협회 차원에서 사범들까지 대상을 확대해 아동성폭력 예방, 인권 등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도장별로 안전수칙 등을 만들어서 배포하는 등 지속적으로 보수교육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주간 스포츠 소식

'아동학대 혐의' 손웅정 감독·코치 등 3인 약식기소...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병과

<https://www.xportsnews.com/article/1899604>

"벌레 먹어라"...고려대 '럭비 코치', 작년엔 선수폭행 징계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212737

사고와 화마, 압박 이겨낸 정호원, 장애인스포츠 역사 새로 썼다[파리 패럴림픽]

https://www.newsis.com/view/NISX20240903_0002873154

장애학생 e스포츠 올림픽 '전국 장애학생 e페스티벌' 개최

<https://game.mk.co.kr/news/it/11108267>

가을 길목 스포츠섬 제주 각종 대회 '풍성'

https://www.nocutnews.co.kr/news/6205653?utm_source=naver&utm_medium=article&utm_campaign=20240903100405

제24회 꿈나무 체육대회, 전남 목포서 스포츠 기량 겨룬다

<https://sports.donga.com/article/all/20240903/126819310/1>

800억원 넘게 번 PGA투어 세플러, 올해 미국스포츠선수 수입 2위

<https://www.yna.co.kr/view/AKR20240903066600007?input=1195m>

2024 코리아오픈 배드민턴 선수권대회 성료...목포시, 스포츠·관광도시 '우뚛'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4090311170069797?utm_source=naver&utm_medium=search

안된다, 못한다는 말을 잊은 김황태, 두 팔 없이 이뤄낸 철인 3종 완주

<https://sports.khan.co.kr/article/202409030924003?pt=nv>

체육시민연대 온라인 정기 후원 안내

‘귀하를 체육시민연대 회원으로 모십니다’

체육시민연대는 우리사회 변화를 위해 실천합니다.

스포츠 인권과 평화, 공정하고 투명한 스포츠문화를 함께 만들어 갑니다.

*후원:국민은행 086601-04-095940, 체육시민연대

체육시민연대는 기부금대상 비영리민간단체로

시민들의 후원에 의해 운영됩니다.

(연말 기부금영수증발급)

온라인 정기 후원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